

다산포럼

정수일의 '실�크로드 사전'



김정남 언론인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영문판 '실�크로드 사전'이 출판되었다. 이 책은 정수일이 기왕에 한국어로 펴낸 '실�크로드 사전' (2013·창비)과 '해상 실�크로드 사전' (2014·창비)을 보완, 영역한 것으로 우선 1000페이지가 넘는 그 방대한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의 신산고초와 긴 여정을 생각할 때 그 감회가 새롭다. 2000년 갑오 안에서 메모 작업이 시작됐으나, 한동안 그 원고를 잃어버렸다가 되찾았으니 실로 천우신조가 있어 이 책이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이 책의 발간은 정수일이 개창(開創)하고 그동안 꾸준히 연구해 온 '실�크로드학'의 결실과 그 실체를 세계 학계에 공식적으로 내놓았다는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 정수일이 '실�크로드학'이라는 학문의 초야(草野)를 일구어 낸 첫 야심작이라 할 수 있다. 잠으로 다 함께 경

하할 일이다. 독일의 라히트호펜(1833~1905)이 중국 답사를 하고 나서 쓴 5권으로 된 '중국' (1877)에서 '실�크로드'라는 말을 처음 쓴 이래 14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실�크로드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교통사, 또는 지역학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정수일이 실�크로드를 통한 문명 교류사를 하나의 학문 분야로 처음 정립함으로써 불모지대인 동서문명교류사(학) 연구의 새 지평을 연 것이다.

일반적으로 실�크로드를 13세기 이전 중국과 로마를 잇는 유라시아 3대 교통로, 즉 북방의 초원로, 중간의 오아시스 육로, 남방의 해로 등 3대 교통로로 한정해 왔다. 그러나 정수일은 15세기 이래 진행된 교역과 내왕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실�크로드의 개념을 구대륙인 유라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신대륙인 아메리카까지 확대하고, 실�크로드를 환지구적 문명 교류 통로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이는 실�크로드와 문명 교류사 연구를 한 차원 높이 끌어올린 것이다. 또한 정수일은 실�크로드의 동단(東端)이 중국이라는 종래의 통념을 깨고 한반도까지의 연장설을 주장함으로써, '세계 밖의 한국'이 아니라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역사적 위상을 밝혀냈으니, 우리 민족사의 새로운 개안(開眼)이었다.

몇 년 전부터 경상북도가 야심적인 '코

리아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정수일의 이러한 이론적 밑받침이 있었기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었다. 2013년,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열렸던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 엑스포'에서 에르도안 터키 총리가 경주와 이스탄불을 각각 실�크로드의 시작점과 끝 지점으로 확인한 것도 정수일의 주장이 공인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정수일에 의하면 실�크로드란 사막이나 풀밭, 바닷물에 묻혀 버린 죽은 길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길이며 인류 역사의 여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이어주는 길이라는 것이다. 세계는 헨팅턴 식 문명충돌론에서 문명공존론으로, 여기서 다시 문명교류론으로 가고 있다고 그는 보고 있다. 문명에서 공통분모를 찾고 교류를 통해서 인간 사이의 보편적 문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세계화요 국제화이며, 정치경제적 세계화가 아닌 보편적인 문명 교류를 통한 세계화가 세계 평화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정수일은 최근 문명교류론의 연장선 위에서 세계 평화를 모색하는 새로운 '평화학'을 구상, 천착하고 있다.

정수일은 세계 4대 여행기, 곧 신라 해초(704~787)의 '왕오천축국전', 이탈리아 마르코 폴로(1254~1324)의 '동방견문록', 모로코 이븐 바투타(1304~1368)의 '이븐 바투타 여행기', 이탈리아 프란체스코 코히 수사 오드리(1265?~1331)의 '동방

기행' 중 마르코 폴로를 제외한 나머지 세권을 한글판 역주본으로 냈고, 그들이 밟았던 길을 몸소 답사하기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실�크로드는 물론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에 이르는 환지구적 교류로까지 답사 여행을 했다. 그의 답사 여행은 세계 4대 여행가가 여행한 곳을 다 합친 것보다 길다. 아마도 그의 여행기가 완결된다면, 그것은 유사 이래 이 세계에서 가장 장엄한 여행 기록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수일의 경험과 사상, 그리고 학문이 두루 압축 반영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 발행된 영문판 '실�크로드 사전'이다. 따라서 이 책은 단순히 실�크로드와 관련된 단어를 풀이하는 '사전'(辭典)이 아니라, 실�크로드와 관련된 사항들을 문명 교류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사전'(事典)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의 실�크로드 사전은 선인들의 학술이나 이론을 서술해 발췌뿐만 아니라 정수일의 창신(創新)한 주장이나 의견이 보태진 '술이화'(述而作)의 저술이다. 그래서 정수일 '편저'(編著·written&compiled)다.

나는 10년 가까이 맡고 있던 문명교류연구구소 이사장직을 이번에 벗었다. 이사장으로서 그에게 큰 힘이 되어 주지 못하는 것을 늘 안타깝게 생각해 왔다. 정수일의 사상과 학문이 세계와 인류를 향해 더 크고 넓고, 높게 퍼지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정준 특·특

내가 꿈꾸는 영웅은



박준성 광주대 문예창작학 석사과정

영화 '반지의 제왕 : 두 개의 탑'이 나왔을 때다. 영화를 본 뒤 극장을 나오는 내 눈 주변은 눈물을 흘린 흔적으로 뚝뚝 붙어 있었다. '세상에 반지에 제왕을 보고 울다니?' 내가 울었던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 보자면 영화 후반부 요새가 함락되고 적들이 최후의 공격을 가하기 직전 장면이다. 노약자와 여자, 아이들을 피신시키기 위해 아라곤이 로한의 왕 세오덴을 설득해 일종의 미끼가 돼 죽기를 각오하고 적을 향해 돌격했고, 간달프는 "로한의 왕이 홀로 섰도다"라고 소리쳤다. 여기서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어 추방당했던 세오덴의 왕위계승 서열 두 번째에 오메르가 "왕은 혼자자 아닙니다"라며 기병들을 몰고 돌진할 때 눈물샘이 폭발

했다.

최근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나왔다. 이 게임의 시네마틱 영상을 보고 나는 또 울고 말았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영상을 한번쯤 보는 것을 추천한다. 내가 결정적으로 울게 된 것은 트레이서라는 캐릭터의 대사 때문이다. 박물관을 지키면서 도움을 준 꼬마에게 트레이서는 "새로운 영웅은 언제나 환영이야"라고 말한다.

반지의 제왕을 보고 울었을 때는 내가 왜 울게 됐는지에 대해 딱히 별생각이 없었다. '오버워치' 영상을 보고 내가 울었을 때는 진지하게 생각해볼게 됐다. 이 두 영웅은 왜 나를 울게 한 것일까? 나만 이것을 보고 울었을까? 두 영상을 다시 보았을 때 나는 또 울었다. 내 감수성이 너무 예민해서 생긴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요즘 흥행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히어로무비를 봤을 때는 왜 울지 않았을까?

'반지의 제왕' 경우에는 로한의 왕 세오덴이 포인트다. 세오덴은 사루만의 계약에 의해 폭정을 일삼지만 간달프에 의해 정권이 온전하게 돌아왔다. 이후 영웅 후반부 전투에서 패배의 위기에 처한 왕이 자신의 안전이 아니라 싸울 수 없는 악자

들을 위해 "우리의 분노를 보여주자"라며 말을 타고 부하들과 달려나간다. 우리가 '다이어트 해야지'라고 말하지만 쉽사리 지키지 못하는 것처럼 의지가 있다고 모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하물며 여차피 다 똑같은 인간이고 감당할 수 없는 위험에서 자신의 목숨을 타인을 위해 내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결론을 내지면 '반지의 제왕'에서 내가 울었던 이유는 "인간을 뛰어 넘은 인간성의 발현" 때문이다.

'오버워치' 영상의 포인트는 꼬마의 행동과 트레이서의 대사에 있다. 꼬마는 기지를 발휘해 트레이서를 돕는다. 이후 트레이서가 도망가는 적을 쫓아가기 전 "새로운 영웅은 언제나 환영이야"라는 대사 속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영웅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라도 타인을 위할 수 있다며 영웅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내가 울음을 터트렸던 이유다.

"평범한 나도 영웅이 될 수 있다." 히어로 무비에서 '평범한 시민이 기억에 남았나?'라고 물었을 때 나는 기억에 남지 않았다고 대답할 것이다. 돌아봐도 내 기억에는 도통 평범한 사람들이 남아 있지 않다. 내가 본 영화 속 히어로들

이 지켜야했던 대상은 애인과 동료 그리고 재산이다. 그리고 대개 키스신으로 끝을 맺는다. 세계평화나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다는 말은 그저 결과지로 밖에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서 내게 히어로 무비는 단순한 오락영화에 지나지 않았다.

현실로 돌아와서 생각해본다. 나날이 삶이 각박하다고 느껴진다. 매스컴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한 범죄와 비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주변 사람들은 다들 먹고 살기 급급하다. 내가 생각하기에 오늘날 우리가 떠받드는 영웅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처럼 부자가 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들 돈이 되는 이야기에 집중한다. 누구나 영웅이 되고 싶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나는 영웅이 되기는 글렀다고 생각한다. 금수저도 아니고 이른바 '돈벌이' 할 수 있는 직업을 갖기 위한 공부도 하지 않았다. 집에서, 친구들도 나에게 돈이 되는 것을 하라고 말한다. 자본의 논리는 교활하다. 무엇이든 상품으로 치환하고 그것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나는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알고 개인 의 삶이 무엇보다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그렇다. 나는 영웅이 되고 싶다.

社說

세월호 '진실의 침몰' 보고만 있을 것인가

안개가 짙게 낀 지난 일요일, 진도군 팽목항 앞바다에서는 세월호 선수(벋머리) 들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세월호 인양은 오는 7월말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무게 1만톤의 세월호와 함께,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슬픔이 깊은 바닷속에서 떠오르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선체만 인양하고 진실은 침몰시키려 하고 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의지를 가진 사실상 유일한 정부 기구이지만 선체가 인양되기 전인 6월 말에 무력화될 위기에 빠졌다.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1일을 특조위가 구성된 날이라고 본다. 특별법에는 특조위 활동기간이 구성된 마친 날로부터 1년으로 돼 있어 이대로라면 특조위는 6월30일 문을 닫아야 한다. 하지만 특조위 측은 국무회의 의결로 예산 지원이 시작된

2015년 8월4일을 특조위 구성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 특조위 활동기간은 2017년 2월3일까지다.

이제 국회가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 활동기간을 보장하지 않거나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위기에 빠진 특조위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히려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시키기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최근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발간을 위한 특조위 정원 산정안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냄으로써 특조위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특조위가 사라지면 침몰 원인 규명은 물론 세월호와 국가정보원의 관계, 전원 구조 오보가 나온 계기 등 수많은 의혹이 가라앉게 된다. 따라서 20대 국회에서는 해수부의 특별법 해석을 바꾸거나, 특조위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6월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관광객 발길 잡는 슬로시티 재인증에 총력을

언젠가부터 여유와 느림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전통과 자연 생태가 잘 보전돼 '국제슬로시티'로 지정된 담양 창평(삼지내마을)과 완도 청산도가 새로운 명소로 발돋움한 것도 그 때문이다.

슬로시티는 지난 1986년 이탈리아에서 '유유자적'을 통해 몸과 마음을 풍요하게 하는 마을'을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창평은 한옥과 된장을 비롯한 옛·한과 등 전통 먹거리가 많고, 청산도는 이른 봄 넘실거리는 노란 유채꽃이 쪽빛 바다와 어우러지는 풍광으로 지난 2012년 각각 슬로시티 재인증에 성공했다. 그동안 두 곳에는 연간 수십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몰리고 텅달아 지역 경쟁력도 크게 향상됐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 다시 거쳐야 하는 재인증을 앞두고 걱정이 많다. 내년 5월까지 국제슬로시티연맹의 실사를 통해 연장 가부가 결정되지만 통과 여건이 까다로워진 데다 그동안 연간 억

대에 이르렀던 정부 지원까지 중단되면서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 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국제슬로시티연맹은 재인증 평가 항목을 종전 50여 개에서 72개로 확대하는 등 인증 요건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관련 사업비가 크게 늘겠지만 우리 정부는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진 슬로시티 운영 주체의 자생력을 키운다는 이유로 올해부터 예산 지원을 멈췄다. 여기에 재정이 빠듯한 전남도는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슬로시티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한다.

슬로시티는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문화·관광 자산이어서 개발이 뒤떨어진 전남으로선 쉽사리 포기하면 안 될 만큼 소중하다. 슬로시티 운영 주체들은 새로운 아이টে임을 개발하고 관광객 층대에 힘써 반드시 재인증 관문을 넘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전남도 역시 사정은 어렵더라도 지원책을 찾아 슬로시티를 꼭 지켜내야 할 것이다.

無等鼓

1848년 1월, 52세의 한 사업가가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그의 집은 피아노 제작 도구와 작업 의자, 3만 달러 어치의 금, 그리고 275kg의 초콜릿이었다.

실연당한 뒤 떠난 남미에서 피아노를 만들어 팔아 부를 축적한 그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다. 멕시코·미국 전쟁(1846~1848) 결과 캘리포니아가 미국에 할양돼 곧 편입될 것으로 예상한 그는 도착 직후 캘리포니아의 빈 땅들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에게는 행운도 뒤따랐다. 그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란시스코 시내에 이집트 기차 피라미드보다 더 큰 피라미드를 지을 생각도 해 봤다.

그러나 그의 최종 선택은 '사회 공헌 사업'이었다. 이를 위해 그는 300만 달러를 내놓았다. 그중 20% 가량은 세상에서 가장 큰 천체망원경 제작에 쓰였고 나머지는 뉴욕 센트럴파크보다 더 큰 공원과 공공 목욕탕 조성 등에 사용됐다. 자신의 이름을 붙인 천문대가 완성되기 전 세상을 뜬 그의 유해는 소망대로 당

시 세계 최대 구경인 36인치(91.44cm) 굴절 망원경 관측실 바닥 밑에 옮겨져 묻혔다.

어떤 부자

목수, 피아노 제작자, 부동산 부호였지만 '과학 후원자'로 기억되는 그의 이름은 제임스 리(1796~1876)이다.

요즘 대기업 관련 뉴스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경영권 분리, 분식회계, 비자금 의혹, 전직 알수수세, 인·허가 로비 등의 단어가 빠지지 않는다. 검찰이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모기업의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미래에도 좋은 이তি지로 길어길어 남을 기업인이나 '부자'의 모습을 보는 게 왜 이리 어려운 것일까?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기 고

전부 조사하면 다 나와?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건이 벌어지면 관련 기관이나 관련자 모두를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대책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나온다. '전수조사'라고 하면 뭔가 대대적으로, 뭔가 철저하고 확실하게 진상을 파악하는 것 같고, 국민들에게는 정부가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2016년 6월 13일 현재 지난 한주 간 '전수조사' 관련 신문 기사를 검색했더니 무려 1019건이나 된다. 전수조사의 결과를 발표하는 기사, 현재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있다는 기사, 이러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수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기사와 함께 시민단체나 관련 협회 등에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는 기사도 있다.

조사 대상 및 내용이 다양하다. '전국 야영장 안전현황 전수조사' '금융협회 자율규제에 대한 전수조사' '공유재산 이용실태 전수조사' '잡다래게양병에 대한 국가 전수조사' '주차시설 현황 및 이용실태 전수조사' '도시지역 내 빈집 전수조사'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구축 전수조사' '양로시설 및 요양시설 인권 실태 전수조사' 등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전수조사는 대상이 되는 모집단 전체를 일일이 조사하는 방법이다. 통계학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모집단 내 일부만 조사해서 전체를 추정하는 표본조사와 달리 표본추출에 의한 오차, 즉 표집오차(sampling error)가 없다. 따라서, 매우 정확한 결과를 얻게 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를 하게 되면 표본추출 오류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오차인 비표집오차(non-sampling error)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표본의 수가 커질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비표집오차는 문항을 잘못 이해하고 응답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차, 무응답으로 인한 오차, 조사원의 숙련도 및 목소리나 표정 등 표현의 차이로 인한 오차, 응답을 기록하고 코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차 등 다양하며 표집오차와 달리 측정이 쉽지 않다.

특히, 이 중에서 조사원에 의한 오차는 생각보다 커서 조사를 위해 투입된 조사원이 늘어날수록 그에 따른 오차도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의 경판 수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도 조사 때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1915년 조사에서는 8만1248개로 집계되었는데,

1975년 문화재관리국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8만1140개로 집계되어 108개 정도의 오차가 나타났다.

전수조사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데에 비하여 그 결과의 정확성은 100%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모집단의 수가 아주 적은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실시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국가 통계 조사에서도 전수조사에 해당하는 '총조사'(인구주택 총조사,경제총조사 등)는 5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다. 그마저도, 2015년 인구센서스의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원에 의한 전국 모든 가구 방문 면접조사에서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생산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바뀌기도 하였다.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실태 파악이 먼저이므로 현황파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것에 앞서 전수조사부터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전수조사 결과를 가지고 다시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한 자료를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 아닌, '보여주기식'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할 때이다.



조지현 동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바야흐로 '전수조사' 전성시대이다. '강아지 공장'에 대한 뉴스가 보도된 후,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문제 해결을 요구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번식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동물보호법 등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미신고업체의 합법화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하였다.

삼마를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도시벽지에 근무하는 6500여 교직원인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유사 사례는 없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도 재빨리 여교사가 홀로 거주하는 관사 총 364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완료하여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자 인 실 220-0536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서울 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주요로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